


이시대 건축사로 살아가기

Surviving today as an architect

김 자 호
 (주)간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1945년 12월 서울 생
 중앙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1969년)



그는 1945년 해방되던 해 12월 10일 서울 종로구 한복판 익선동 34번지에서 태어났다.

소년시절 꿈인 전투기 조종사는 무산되다

나의 소년시절 꿈꾸었던 희망은 전투기 조종사가 되는 것이었다. 중고 시절 공부보다는 운동장에서 많이 놀았고, 여름엔 수구 선수, 겨울엔 아이스하키 선수로 활약하였으니, 기초 체력단련은 훌륭한 편이었다.

아버님, 삼촌, 형님들이 모두 의사인 집안이라 부모님은 당연히 의사가 되는 것으로 키우셨다. 물론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고 사회봉사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피를 보는 생활과 제한된 사회생활이 싫었다.

그보다는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씩씩한 군인, 특히 하늘을 나는 전투기 조종사가 되는 것이 소망이었다. 물론 노후에는 민간항공기 파일럿이 되어 세계를 다니며 일하고 싶었다.

그런데 부모님은 자유직업을 갖는 것은 좋으나 군인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고, 극구 반대하셨다. 아마도 본인이 6.25전쟁 때 많은 부상자를 치료하다보니 군인을 희망하지 않았나 보다. 이렇게 되어 소년시절 꿈은 접혀졌다.

친구 따라 중앙대학교를 가다

사실은 공군사관학교 입학을 접고 나니 공부도 뒤로 처졌지만 아이스하키 선수로 고려대학교 체육부에서 요즈음 말로 스카우트 제의가 있었다.

선배 2명과 함께 입학을 권유 받던 중 초등학교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의 큰 이모가 중앙대학교 이사장이었는데, 대학까지 같이 다니기를 무척 원했다. 지금 보면 철없는 생각이었지만 친구 따라 강남을 가버리고 말았다.(부모님 역시 계속 의사가 되기를 희망하였지만...)

그런데 막상 진학을 하려고 하니 희망하는 전공과 학과가 필요했다. 마침 만들고 키우는 소질이 있어 신설 건축공학과를 택하였고, 그때 인연이 된 이명호, 김덕재, 신현식 교수님과는 지금도 사제시간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이 운명이었던지도 모르고, 한편으로는 훌륭한 분들을 만나게 된 것이 전화위복인지도 모르겠다.

머릿속에는 항상 유학의 꿈으로 가득

재학시절 뒤늦게 철이 들어 2년차부터 이명호 교수님의 지도로 건축에 입문하였고, 3년차부터는 ROTC 군사훈련까지 병행하여 명실상부 좋은 학생으로 성장하였다.

3, 4년차에 비로소 건축에 관한 지식을 쌓았고 유학의 꿈도 꾸게 되었다.

유학대신 일본 회사에 취직

1971년 공병장교로 제대 후 못다 한 공부와 사회경험을 쌓으려 고민하며, 독일과 미국에 유학준비를 하고 있던 중 부모님 친구분으로 경제계에서 유명하신 한 분의 권유로 한·일 주거문화와 건설에 관한 회사가 설립된다 하여 우선 일본에 요즈음 이야기로 인턴사원으로 우여곡절 끝에 일본으로(그 당시에는 여권과 VISA 획득이 무지하게 어려웠다.) 건너가게 되었다.

일본의 10대 재벌 회사 중 TOKYU그룹의 부동산, 건설, 설계 회사에서 3년간 인턴사원, 5년간 사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일본에서 한국인으로 처음 '일본 1급 건축사 면허' 획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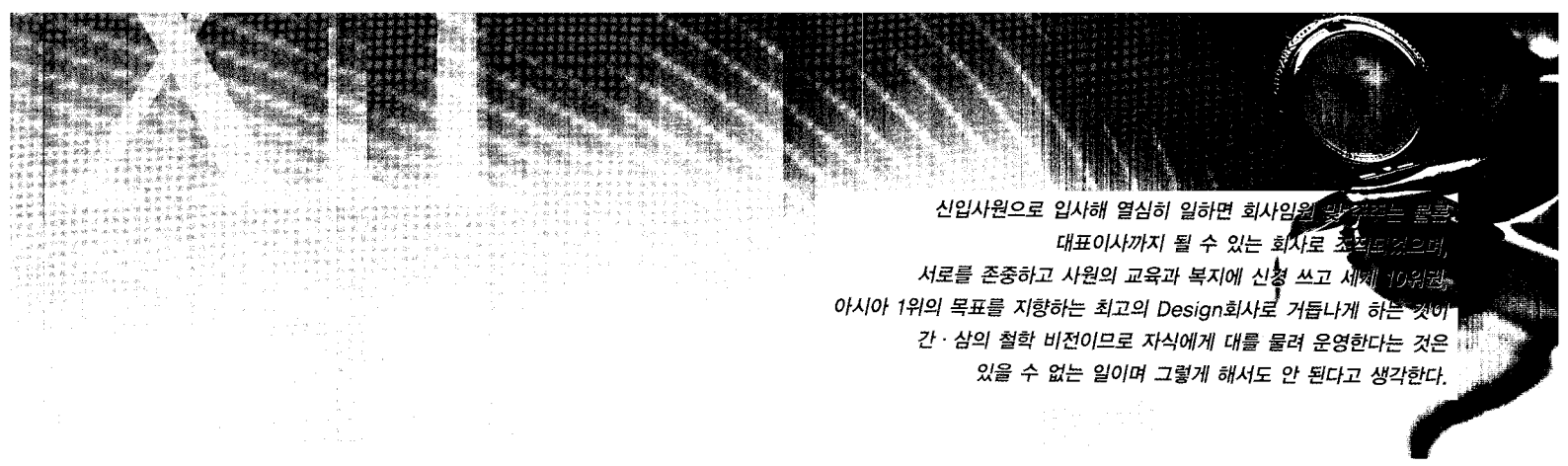
그 시절엔 한국인으로 건축유학생은 물론 일본 체류인구가 손으로 꼽을 정도(왜냐하면 한일 우호협력이 결정된 지 5년 정도 되었다.)로 재일교포를 제외하면 매우 드물었다.

열심히 일도 배웠고 매년 실력이 쌓여 성숙된 건축인으로 성장하게 되었으나, 무엇인가 사회에서 인정받으려면 일본에서 대학원을 다녀 석사나 박사가 되든가, 또는 건설성에서 인정해주는 국가자격시험(일급 건축사가 최고임)에 합격하는 길 밖에 없었다. 우선 시험자격부터 문제였다.

(1년에 걸쳐 건설성과 협의 후) 1977년에 필기와 실기시험에 모두 한 번에 합격하는 영광을 얻었다.

유학의 꿈을 접고 정림건축에 들어가다

대학시절 못 다한 유학의 꿈은 동경생활에서도 늘 머릿속에 남아있어 동대 대학원에 6개월 연수도 해보았고(VISA 문제도 무산됨) 독일 하노바공대의 입학허가서도 받았고, 미국설계회사에도 노크를 해보았으나 나의 개인사정(결혼해서 부인과 딸이 있었음)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열심히 일하면 회사임원 및 주주는 물론 대표이사까지 될 수 있는 회사로 조직되었으며, 서로를 존중하고 사원의 교육과 복지에 신경 쓰고 세계 10위권, 아시아 1위의 목표를 지향하는 최고의 Design회사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간·삼의 철학 비전이므로 자식에게 대를 물려 운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과 한국의 건설경기의 호황으로 외국서 유학보다는 국내로 귀국하는 길이 옳다고 판단하고 꿈을 과감히 접었다.

그 시절 서울에서는 기술인력, 특히 외국유학생들이 환영받았다. 현대건설, 서울건축, 정림건축에서 면접을 하였고 최종 선택한 곳이 그 당시 국내 제일로 설계회사다운 정림건축에 취업하게 된다.

Design보다는 기획실을 담당하다

1979년 4월에 정림건축에 입사하여 김정철, 김정식 회장님 밑에서 한국사회와 건축계, 또 처음으로 동년배, 선후배 건축인과 접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무척 고민을 많이 했다.

사회생활의 기본 틀이 처음 일을 배우던 일본과는 너무 다르고, 익숙하지 않은 사회가 10년간의 공백을 메워주지 못했다.

디자인의 접근방법과 건축주의 수준 또한 건축일을 하는 사람을 건설회사 인부 다루듯 하는 게 심기가 불편하였다.

디자인보다는 건축인의 지위향상과 사회적 인식을 변모 시키는 것이 더 우선순위인 것을 느끼고 회사 조직을 발전시켜 대한민국의 제1의 우수회사로 만들려는 의욕과 욕심이 생겨 일본에서 배운 실력을 바탕으로 회사 기획업무를 시작하였다.

정림건축 입사는 장래 사장이 되는 것

1979년 10월에 박대통령 서거, 12월엔 12·12사태가 발발하여 혼란한 사회가 계속되고 건축행정 또한 우왕좌왕 하던 시절, 회사 틀을 잡는데 열중하던 중 지금의 간삼건축이 지향하는 파트너십에 몰두하여 회사에 제안해 보았으나, 임원 측의 답변은 그리 긍정적이지는 않았던 것을 느꼈다.

1981년 우연히 원정수, 지순 교수님을 한국은행 프로젝트를 통해 알게 되었고, 정림건축과 협력하여 본점 설계를 하는 TF Team을 이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으나 나름대로의 보람은 김수근 선생님을 알게 되었고, 그분의 새로운 면과 깊이 있는 건축관, 화류계에서의 풍류를 가르쳐 주셨고, 그때 장세양, 송효상 선생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분의 사랑을 받고 건축에 대한 진솔하고 깊이 있는 생각은 결국 지금 간삼건축의 상호를 지어 받게 된다.

정림건축 복귀 대신 사무실을 차리다

정림건축과 일양건축(원정수+지순)의 합작된 한국은행 본점 설계는 정부 관료의 무책임과 시대적 흐름에 부응 못하고 용두사미로 프로젝트가 공중분해 되어 버렸다.

1983년 37세의 나이로 한창 기름이 불에 들어간 듯, 물고기가 물을 만난 듯, 열심히 일하고 놀던 시절에 기가 죽을 수는 없어 한국에 돌아온 지 4년이 되면서 완전히 국내사정에 익숙해졌고, 가깝게 지내는 지인과 선배님도 많아져 후원자가 늘었다.

인생에 기회가 몇 번 오는가! 이제는 독립할 때라 생각하고, 현재 단국대 이범재 교수와 간삼 창립멤버인 이광만 회장과 삼선교에서 결의하여 사무실이 창립되었다.

그날이 6월 29일이었다. 그 해 9월 주식회사 간·삼건축이 창립되며 원정수, 지순 교수가 주주로 영입되어 명실 공히 간·삼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김수근 선생님의 작명으로 間·삼이 되다

40명 정도의 명실상부한 설계회사로 성장 되었으니, 김수근 선생님께 작명을 부탁드렸더니 空間의 속은 비었으니! 너희는 時間과 人間을 더 넣어 '間·삼'이 좋겠다. 특히 가운데 점은 세간의 間이 합쳐지고, 즉 자기란 뜻이고, 또 삼자는 많다는 뜻이 되는 완벽한 숫자이니 글로벌 시대를 예측하여 'Group-3' 라고 하면 외국에서도 알려질 것이다 하여 그분의 깊은 뜻이 지금도 감사하고 영광으로 깊이 간직하게 되었다.

1984년 다시 한국은행 본점 현상설계가 당선되면서

세상이 변하여 한국은행 총재가 최창락씨로 바뀌고 다시 본점 신축이야기가 나와 다시 현상설계가 시작되었다. 이것은 간·삼에게는 신이 주신 기회였으니 온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고 원, 지 교수님은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기회였다. 결국 우리 Team은 당선되었고 준공이 되면서 국내의 오피스빌딩 설계 집단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1980년대 중반 영풍빌딩, 1989년 포스코 빌딩, 1990년 초 테헤란로 유니온빌딩, 과천 코오롱본사 사옥, 동국제강 본사사옥 등 매년 30%로 성장되는 모범회사로 성장하게 된다.

인터뷰 후기

내가 한국의 건축사사무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대조직 중 가장 모범으로 삼아 말하는 곳이 간삼건축이다. 이유는 다른 대 조직들은 덩치는 커도 결국 한사람의 오너십에 의해 다스려진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대그룹의 비호를 받거나 하는데 비해 간삼은 사무소 명칭에서 3인의 창립자가 나타나고 현재는 더 많은 주주에 의해 이끌어가는 명실 공히 집단지도체제가 확립되어 있는 회사라고 믿혀지기 때문이다.

길지 않은 기간에 500명에 달하는 대 조직을 만든 데에는 이러한 분권체제가 확립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확고한 시스템을 확립하는데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김자호 회장이라고 생각한다. 항상 만나면 건축이야기는 노골적으로 골치 아프다고 하며 노는 일에 몰두한다는 사실을 스스로없이 내뱉는 모습에서 아무나 친구로 만들 수 있는 친화력이 느껴진다. 간삼의 향후의 행보가 과연 어디까지 일지 김자호 회장이 은퇴 후의 간삼은 어떤 모습으로 변모해갈지 관심 가는 바이다.

인터뷰-최동규 건축사지편찬위원회 위원장

간·삼은 자식에게 물려주는 회사가 아니다

간·삼건축은 창립 할 당시 주식회사로 시작되었지만 파트너십에 의해 진행되었다. 자기가 맡은 전공분야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역할분담도 분명히 정해 모두 합심하면 무한대의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졌고, 그 조직은 28년째 계속 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변해갈 것이다.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열심히 일하면 회사원 및 주주는 물론 대표이사까지 될 수 있는 회사로 조직되었으며, 서로를 존중하고 사원의 교육과 복지에 신경 쓰고 세계 10위권, 아시아 1위의 목표를 지향하는 최고의 Design회사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간·삼의 철학 비전이므로 자식에게 대를 물려 운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나 또한 언젠가는 은퇴하고 후배양성에 힘쓰는 영원한 간·삼인으로 남는 것이 희망이다.

세계건축설계를 리드하는 지존으로 남고 싶은 (주)간삼건축

(주)간·삼건축은 한번 관계를 맺은 건축주는 영원한 건축주로, 항상 다시 찾아주는 회사로 건축주가 요구하는 설계 이외에도 무엇이든 컨설팅 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 service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가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와 사람은 하루아침에 키울 수 없다’는 교훈으로 (주)간·삼건축은 Design사관학교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속적이고 전문적으로 우수 직원을 교육시켜 장래 간·삼의 초석으로 삼으려고 무한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나아가 해외 유학생 까지도 지도하려 한다.

(주)간·삼의 리더는 직원이면 누구든 할 수 있다

회사가 지속가능하고 사회의 리더가 되려면 우수한 인재를 양

성하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키워주며, 세계적인 글로벌 회사가 되려면 100%리더교육을 구상하여야 하며, 앞으로 건축시장의 축소로 인한 대비에 각 분야에서 만반의 준비를 게을리 하지 않고, 인간 중심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즐겁게 살자”가 나의 좌우명

스스로 ‘自’ 자에 넓을 ‘洑’가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으로 나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오늘 안 되면 내일이 있고 주변과 같이 모두 즐거워지려고 노력한다.

한국건축계의 문제점은 전 방위 부패구조라고 생각 한다

한국건축계의 문제점은 어제 오늘이 아니며, 우선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비하해서 건설회사나 건설행정 공무원의 시너 역할밖에 못하는 것이다.

소위 건축가의 사회적 지위를 우리 스스로 찾아 덕망 있는 건축인으로 수준을 올려야 하는데 설계, 감리비도 깎아주고(대서방 수준) 건축주들의 대서역할 정도로 실력과 철학도 없어지고, 건설 회사가 시키는 대로 수공하는 것 또한 문제가 많다.

또한 일부 건축 설계회사들이 윤리적으로 어긋나는 행위를 하면서도 윤리적 책임을 망각하고 있으며, 일부 건설회사는 수주를 위해서는 어떠한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

국가에서 녹을 먹는 공무원은 법과 시행령에 따라 엄격히 공무집행에 노력하여야 하는데 일부 한눈파는 분도 계시고, 학문의 전당에서 가르치는 교수님 또한 후학 양성과 연구에 몰두하여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다른 곳으로 한눈파는 분들도 계시니, 우리 사회가 특히 건축분야는 깨끗해지고 공명정대한 분야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의 작은 소망이다. ■